

마음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린 겨울도 결국은 봄을 부르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대할 주년. 평생 이 분야에 몸 담겠노라 다짐했고, 그 만큼 사랑했고 노력했다. 설사 암암을 전제로 다녔던 연구실에서 잘리기 전까진 연구실에서 잘리고 나서 한동안은 나를 자책했다. 내가 못해서, 재능이 없어서, 끈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좌절감이 들었다. 난 이 길 말고 생각해본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난 내 전공을 너무 사랑했었다. 이것 하나만 보고 달려 왔는데 재능이 없다는걸 깨달았을때 절망감을 상상하
한동안 나는 말을 잃었고, 수면이 없는 날이면 먹지도 않고 잠만 잤다. 작다가하면 끝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주간 보내고 혼자서 이곳저곳 다니기 시작했어. 지금 이 불행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6. 07. 21. 나는 조금 해질녘 진안 용담호에 있다. 틀리는건 연길 콜벌레, 마미 소리만 바람소리 뿐. 흔들 나는 깨닫는다. 내가 공부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을 낭비한 걸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좀 더 전공을 살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놓치지 않아서 아등바등.. 그랬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왜냐나 나를 감아왔는 짐작이되었는지.. 힘을 빼고 살아 일단 섰고 나갈것. 자연을 볼것. 살아있는 느끼고 숨을 쉴것. 내 벅찬 몸뚱아리가 중력을 통해 자기 무게 있음을 느낄 것. 그러면 된다.

- ▶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063)430-8529
- ▶ 자살 ·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QR코드를 찰칵! 찍어주세요



나들e진안



마음건강